

물러서지 않는 촛불! 이젠 한미 FTA 폐기다!

✎ 이명익 기자 | ⓒ 승인 2011.11.23 14:23

| 22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모인 성난 민심 이젠 한미 FTA 폐기다.



▲ 11월 중순의 겨울 날씨도 무차별하게 뿌려지는 경찰의 물대포도 성난 촛불을 꺼트리지 못했다.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가 되던 22일 밤 정권이 할 수 있었던 건 물로 불을 피우는 일 뿐이었다. 이명익 기자



▲ "비준 반대! 명박 퇴진! 비준 반대! 명박 퇴진! 비준 반대! 명박 퇴진!..." 눈물은 분노가 되어가고 있었다. 이명익 기자



▲ 14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10명의 미래희망연대,자유선진당 의원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... 이제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거래해야 할 때다. '정권퇴진'의 이름으로... 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연행 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 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한 참가자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도 손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을 향해 손피켓 들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▲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'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'에 참여한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.이명익기자



이명익 기자 lmi1230@nate.com